

고졸 취업 선택시 1순위 '수입' 대졸 '안정성'

서울시, 서울시민 취업현황·직업관 조사



시민고객의 일상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매월 넷째주에 정기 발간하고 있는 'e-서울통계' 제 31호에서는 "2009 서울시민의 취업현황 및 직업관"을 다루고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밝혔다. (분석자료 : 통계청 취업자동계 및 2009 사회조사 자료)

취업자 중 대졸 차지 비중 증가, 평균 연령 높아져 노동력 고령화

지난해(2009년) 서울 취업자는 483만5천명이며, 이중 남성은 2,779천명(57.5%), 여성은 2,057천명(42.5%)임. 여성취업자 비중은 1999년 41.4%에서 지난해 42.5%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령대는 40대가 1,313천명(27.2%)으로 가장 많고, 30대 1,259천명(26.0%), 20대 926천명(19.2%), 50대 884천명(18.3%), 60세이상 413천명(8.5%) 순이다.

25-34세 취업자 비중이 10년 전 31.3%에서 26.1%로 줄어든 반면, 45세 이상은 30.1%에서 40.3%로 증가하였고, 일하는 60세 이상도 증가(5.6→8.5%)했다.

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고령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중 대졸자(대졸이상)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직장엔 대졸자가 많아지면서(취업자 중에서 대졸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일하고 있는 분야로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많아지고 있다.

학력별 취업자 비중을 보면, 대졸이상이 2,296천명(4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1,866천명(38.6%), 중졸 379천명(7.8%), 초졸이하 294천명(6.1%) 순이다.

대졸이상 취업비중은 10년 전 31.9%에서 2009년 47.5%로 빠르게(15.6%포인트) 증가하고 있으며, 고졸 학력자의 취업자 비중은 동일기간 45.1%에서 38.6%로 6.5%p 하락, 중졸이하 학력자도 23.0%에서 13.9%로 9.1%p 하락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가 2004년 24.7%에서 5.0%p 증가하여 29.7%(1,434천명)로 가장 많고, 서비스·판매종사자 1,276천명(26.4%), 사무종사자 843천명(17.4%),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725천명(15.0%), 단순노무 종사자 552천명(11.4%) 순이다.

서울지역 취업자의 주당평균취업시간은 46.4시간으로 10년 전(1999년)보다 4.5시간 감소(50.9→46.4시간)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54시간이상 일한다는 취업자가 10년 전에 비해 15.1%p 줄고(44.4→29.3%), 36-44시간이 12.8%p 증가(16.9→29.7%)했다.

취업시간 통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은 직업선택시 안정성, 고졸은 수입

15세 이상 서울시민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수입(33.2%)', '안정성(30.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적성·흥미(11.8%)', '보람·자아성취(10.0%)', '발전·장래성(8.2%)'이 뒤를 이었다.

2002년과 비교하면, 수입(21.7%→33.2%)은 높아진 반면, 안정성(31.4%→30.0%)은 소폭 감소, 적성·흥미(18.3%→11.8%), 발전성·장래성(16.5%→8.2%)은 크게 낮아졌다.

학력수준별로 보면, 대졸이상은 수입(26.5%)보다 안정성(30.7%)을 선호하는 반면, 고졸은 안정성(30.8%)보다 수입(37.5%)을 직업 선택 요인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이상은 직업선택 시 '적성 및 흥미'에 대한 선호도가 2002년 23.2%로 수입(15.7%)보다 높았으나, 2009년 12.1%로 11.1%p나 낮아졌다.

청년(15-29세)이 선호하는 직장, 국가기관·공기업 순

서울 15-29세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는 국가기관(23.7%)이 가장 많았으며, 공기업(18.6%), 대기업(17.3%), 전문직 기업(15.5%)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이러한 성향은 직업선택시 특히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일자리 근로여건 '참을만하다'

서울시민들은 전반적인 근로여건을 고려할 때, 27.6%가 현재의 일자리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2.6%는 '보통'으로 응답하여 '참을만하다(보통이상 80.2%)'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복리후생, 직장 장래성, 근로시간, 인사관리 부분은 불만족이 만족보다 높았으며, 근무환경, 하는 일, 인간관계 부분은 불만족보다 만족이 더 높았다.

여성, '중단없는 직장활동' 바라지만,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해서 취업 포기 여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15세 이상 서울시민 83.5%(여성 86.4%)가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10명 중 1명(10.4%)은 '취업보다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6.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중단없는 직장활동을 하는 것'에 서울여성 58.7%가 찬성하였으며, 여성 2명 중 1명은 여성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육아부담'이라고 여겼다.

1998년과 비교하면 여성 취업은 결혼 전과 자녀성장후가 좋다는 응답은 10.6%p(33.2%→22.6%) 줄어든 반면, '여성이 가정일에 관계없이 계속 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35.9%에서 2009년 58.7%로 22.8%p 높아졌다.

여성취업의 장애요인으로는 핵가족화 및 가전제품 등의 발달로 가사가 부담이라는 응답은 줄어(10.3→5.4%)든 반면, 실질적으로 육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98년 33.2%에서 '09년 49.9%로 16.7%p 상승했다.

여성취업자는 25-29세에서 가장 높다가, 출산 및 육아에 직면해 있는 30-34세에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여성들이 여전히 육아 부담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철, 버스에서 영어 말하기 공부

SK텔레콤, 'English Bean' 서비스 시작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1월 25일 청담러닝(대표 김영화, http://.company.chungdam.com)과 함께 휴대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어 공부 가능한 'English Bean(www.englishbean.c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nglish Bean' 서비스는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말하기' 부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매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커피 한잔 마시듯 즐기면서 최신 시사 이슈를 간단한 영어문장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이 상품은 출퇴근 시 지하

철이나 버스에서는 휴대전화로,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인터넷으로 부족한 영어 말하기를 익힐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사용자가 유선과 무선방식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틈틈이 남는 시간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회사 측은 이 상품에 대해 회사가 보유한 ICT 기술과 청담러닝의 3E학습 방법론(Exposure→Experience→Education)이 결합한 'Smart Learning Service'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는 시사이슈에 대한 다양한 표현방식을 반복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은 물론이고,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녹음

하면 전문 강사진이 학습자가 녹음한 표현에 대한 첨삭지도와 평가를 해주는 학습관리기능도 제공한다. 또 웹사이트를 통해 해설강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심화학습을 할 수도 있다.

이용방법은 휴대전화의 경우 *05365+NATE버튼'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englishbean.co.kr'이나 SK텔레콤 고객센터를 통해 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터치' 방식 휴대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달 초부터는 회사의 T모니아 계열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는 월정액 18,000원(VAT별도, 데이터 통화료 포함)이고 앞으로 올해 상반기 중 1-2개의 학습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기업 또는 기관에서도 휴대전화와 웹사이트를 활용한 'Smart Learn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을 대상으로 한 English Bean 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 박인식 기업사업부 문장은 "앞으로 SK텔레콤은 ICT 기술을 적용해 학습자의 학습환경에 맞춘 효율성 높은 다양한 Smart Learning Service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원석 기자
wvs@eduyonhap.com

서울대 서유현 교수, 신(新) 치매 유발 유전자 발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유현 교수 연구팀이 새로운 치매 유발 유전자인 S100a9(calgranulin B)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서유현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와 한국 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이 추진하는 '리더연구지원사업' 중 창의적 연구'와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PLoS Biology와 PLoS Medicine

의 자매지인 온라인 전문지널 『PLOS ONE』 1월 21일(목)에 게재된다. 서유현 교수팀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 S100a9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과 siRNA를 처리하면 치매 발병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 교수는 치매 유발 형질 전환 쥐의 뇌 조직으로부터 유전자 칩 어레이 방법으로 비정상적 발현이 증가되고 있는 S100a9 유전자

발견하고, 이 유전자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상당부분 발현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서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치매 모델로 형질이 전환된 쥐의 뇌에 shRNA를 주입한 결과, 치매 발생이 상당부분 억제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치매의 가장 큰 증세인 '기억력 감퇴'가 방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뇌 세포 속에 다량 존재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C타 단백질의 침착으로 인한 '신경반 형성'과 독성으로 인한 '신경 세포 사멸'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본사사령
호남본부 취재부장 오태근
편집국 기자 송경준
2010년 1월 27일자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발행인/편집인 한승균	
우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135-1 205호	
구독문의/대표번호 (업무국)032-433-1633 (편집국) 032-433-4633 (광고국) 032-433-0633 FAX 032-433-5633	
포천지사 031-542-8353 호남본부 062-654-1633	
구독료: 한달 10,000원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인친다06002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산부지 요리전문점

낙지세상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매콤한 맛!
맛과 향을 만족 시키주는 - 낙지세상

단체예약환영

프리미엄 시네마	GS백화점
낙지세상	맥도널드
	강릉점
	공영주차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2-16
대표전화 : (032)328-9090 핸드폰 : 019-209-9305

사업자 여러분의 성공비즈니스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광고세무법인 인천지점

대표 세무사 조명석

복잡한 세무, 회계 관련 업무 광고세무법인 인천지점에서 쉽게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제공하시는 업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 세무상담**
 - 부동산 관련 세무서비스
 - 개인 재산 관리 및 자문
 - 기타 세무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과 관리
- 02 가장대리 등 각종 세무대리업무**
 - 가장대리 및 세무조정
 - 각종 세무신고대리
- 03 조세분복**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832-1 남동상공빌딩 501호
TEI : 032)817-8620 FAX : 032)817-8623

사무공간의 새로운 변신
행복한 꿈을 이루는 공간 아모스

cmos (주) 아모스아인스가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35번지
대표전화 : (032)563-2700 | 팩스 : (032)563-5291